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성열 · 이흥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 생활하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으로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과의 관련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eeman(1959)의 이론에 근거하여, 소외를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감, 문화적 소외의 5가지 유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일, 자기, 사회제도, 대인관계, 가족으로 구성되는 5가지 사회적 맥락에 따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무기력감이나 행위규범을 상실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반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소외감이 높았다. 이는 첫째 개인주의적일수록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아직까지 집단주의적인 사회라고 지각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개인주의적 성향 자체가 집단주의적 성향보다 소외에 민감한 특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녀 차이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여자들은 한국사회가 아직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이며, 전통적 규범이 실제 변화한 게 없다고 느끼면서 이 때문에 소외감이 높았던 반면, 남자들은 여자들과 달리 소외감이 높으면서도 우리 사회의 규범이 조금씩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다는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자들의 경우 특히 대인관계, 가족과 같은 영역들에서 남자보다 소외감이 높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이러한 성향이 달라지지 않음을 볼 때, 관계장면과 정서적 영역이 여자들에게 일차적인 갈등과 소외의 원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전 사회와 구별되는 현대사회의 정신적 현상을 논할 때면 소외(alienation)를 빼놓을 수 없다. Fromm(1956)에 따르면 소외 개념은 "근대적 퍼스넬리티"의 가장 근저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평균적인 개인의 성격구조 사이에서 생겨나는 상호작용을 가장 적절하게 부각시켜 준다(정문길, 1978, 1984).

사회내의 변화가 점진적이었으며, 변화의 범위가 적었던 이전사회와 달리 현대는 짧은 시간내에 급격한 변동과 개편을 경험하여 왔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우정과 친목관계, 가족중심관계에 대한 제도적 의무가 중시되던 사회형태(particularism)로부터 우정을 조작하고, 물질과 지위의 획득에 가치를 두며, 가치지향성이 추상적 사회에 대한

제도적 의무로 주어지는 사회로(universalism) 변해 왔다. 또 문화적 가치중심이 사랑과 지위, 서비스 등의 집단중심주의적 특성에서 돈과 정보, 상품, 성취가 강조되는 개인주의적 특성이 강조되는 사회로 이동하여 왔다(Triandis, 1984). 이러한 변화의 결과, 현대사회에서는 이전사회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정신의 와해현상으로서의 소외가 발생하게 된다. Fromm(1956)은 산업사회의 메카니즘에 의해 시장지향적 성격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심층적인 소외현상이 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Alpert(1937)에 의하면, Durkheim은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사회 내부의 통합력 상실과 규범붕괴현상(anomie)이 개인 내부에서 무규범적인 태도와 소외감정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들 Fromm, Durkheim 등의 이론가들은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소외를 “자기를 낯선 사람처럼 경험하는 경험양식”, 또는 “자아가 두 부분으로 분열된 후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고 통합이 되지 못한 상태”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현상은 시장메카니즘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시장지향적 성격이라는 비생산적인 성격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다(Fromm, 1956). 그리고 소외는 불안, 심리적 경직성, 공격성, 극단적인 신념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정 사회상태에 대한 사회성원의 부적응적 반응이다(McClosky & Schaar, 1965).

이와 같은 소외개념에 근거하여 Seeman(1959)은 소외를 다음과 같은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첫째 요인인 무기력감(powerlessness)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나 외부사건에 대한 통제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소외된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위의 보상이 강력한 타자나 행운, 운명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동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둘째 요인인 무의미성(meaningless)은 외부환경이나 사상에 대한 이해력이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이는 외부환경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느낌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의미성은 사회가 규범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을 기능적으로 조직화해서 생기는 것으로써, 그 안에서 기능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직관적 능력에 의하여 사건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에 대처하며, 미래의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요인인 무규범성(normlessness)은 한 사회 내의 규범부재에 대한 기대 혹은 예상이다. 무규범성은 사회가 공통기준을 상실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사회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목표성취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승인받지 않는 행동도 필요하다는 자기자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무규범성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의 붕괴 또는 혼란상태에서 발생한다.

넷째 요인인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은 개인이 사회에 대하여 갖는 사회적 수용감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이다. 사회적 고립감은 자신이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집단의 기준에서 떨어져 있다는 고립감정이나 거부, 거절등의 태도로 나타난다.

다섯째 요인인 문화적 소외(cultural alienation)는 자신이 한 사회의 대표적 기준에서 유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나 태도를 의미하고,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두는 문화적 목표와 신념들에 개인이 낮은 보상가치를 두는 것을 말한다. 앞의 네 가지 유형들이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하여 문화적 소외는

단지 자신이 같은 사회의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느낌과 태도를 의미할 뿐이지 부정적인 태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섯째 요인인 자기소외(self-estrangement)는 자기자신을 행위의 주체나 목적으로서 경험하지 못하고 도구, 수단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자기소외의 기원을 알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소외되지 않은 이상적인 조건이나 자기 완성, 자기보상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Seeman은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Maddi, Hoover, Kobasa(1979)는 Seeman의 주장을 기본으로 하여 일, 사회제도, 가족, 대인관계, 자기등의 사회적 장면을 도입하고, 이러한 장면에 따라서 소외의 하위차원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보았다. 그들(198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외는 성취, 인내력, 바람직한 사회적 반응, 내적 동기에 의한 행동 등의 긍정적 특성들과 부적 관계에 있으며, 성장과 발달의 방해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Seeman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소외상태에 이미 심리적인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규범적인 혹은 갈등하는 사회적 상황이 개인 내의 성격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인지적, 정서적 요인, 신념과 태도 등의 복합적인 심리적 상태로 구성되는 소외상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소외는 한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할 뿐 만아니라, 심리적 부적응 내지 역기능 상태와도 관련이 있고, 특정 사회상태에 대한 개인의 특별한 “정신적-심리적 상태나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Segal (1990)은 소외를 사회구조와 연관시키지 않고 독립적인 심리적 현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소외란 근본적으로

“자기(self)의 어떤 측면을 낯설게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의 한 측면을 나의 것이되 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통합성(unity) 또는 전체성(wholeness)의 결여를 소외상태의 중요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Segal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와 자기의 요소들 간의 통합의 부재”가 바로 소외상태이다. 이 통합성의 부재는 행동의 요소들 간에, 자기의 요소들 간에, 그리고 자기와 행동의 요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데 이 세 영역들에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자기와 행동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개인이 행위 주체성(agency)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이러한 영역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모두 소외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Segal의 자기와 행동, 감정, 가치 등의 심리적 요소와 이들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소외개념의 규정등에서도 소외가 심리적인 현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Segal의 주장 역시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소외의 정의 자체가 여전히 이인화(depersionalization)와 같은 신경증적인 현상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둘째, 추상적으로 개인이 도달해야 할 성숙인격을 가정하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준거로서 통합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소외란 통합을 이루지 못한 개인 내부의 모든 심리적 균열상태를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소외란 인간이 갖고살 수 밖에 없는 정상적이고 보편적 현상임과 동시에 병리적 현상이라는 모순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성숙인격에 도달한 극소수를 빼고 대부분의 개인들은 영원히 소외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소외상태란 결국 실존적 조건이며, 이 경우 우리는 성숙인격 내지 적응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써

소외라는 용어를 써야 할 지도 모른다(민경환, 1992). 셋째로, 소외를 이렇게 개인의 실존적 조건으로 용해시킴으로써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오는 소외를 배제하게 되고, 소외는 근본적으로 특정한 사회구조적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인상을 갖게 된다. 네째로, Segal의 논의는 그 심리학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 한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가 없다(민경환, 1992). 나아가 Segal의 개념 속에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기와 행동 간의 갈등, 현재의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의 갈등에는 이미 사회적 조건과 영향력이 개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외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소외는 전통사회에서보다 현대사회에서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역기능적 증후이다. 그리고 소외가 현대사회의 중심주제 중 하나로 등장했던 이유는 설령 소외가 선풍적이며 실존적인 인간의 조건이라 해도 이러한 소외의 조건이 현대에 이르러 더 이상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 현대라는 사회의 구조적 경향이 소외상태를 오히려 가속화하고 병리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역시 이 과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서구문화의 유입, 전통문화의 위축을 통해 사회문화적 갈등을 경험하여 왔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사회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특수주의(particularism)가 뒤섞여 문화적 소용돌이(cultural turmoil)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 사회 고유의 통일적인 문화적

정체감(cultural identity)을 명확히 형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사회 내의 다수의 개인들에게 기본적인 성향의 변화와 소외라는 심리적 역기능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가져오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Triandis(1988)를 비롯한 이론가들은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이라는 입장에서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그리고 개인 내부의 의식의 변화라는 입장에서는 집단주의적 경향(allocentric)에서 개인주의적 경향(idiocentric)으로의 변화로 보고 있다.

개인주의에서는 집단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중요시하며, 개인이 집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적다. 반면 집단주의에서는 개인이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집단의 정체감에 동화되어 사회적, 개인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내집단이 개인에게 중요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의 일차적 자원 역할을 한다. 개인주의에서는 집단보다 자기 자신이 일차적으로 자기의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데 비하여 집단주의에서는 규준집단과 일차집단이 개인에게 스트레스와 삶의 제약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극단적인 개인주의는 높은 범죄율과 자살율, 정서적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의 사회병리와 연관되어 있다. 이와 달리 집단주의는 행복한 결혼생활, 정신건강과 조화에 기여한다고 한다. 집단주의적 성향의 남성들은 외부귀인을 많이 하며 자신의 행동과 정서, 인지적 요소 사이에 일관성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에 개인주의적 성향의 남성들은 내부귀인을 많이 하며 행동과 정서, 인지적 요소들 사이에 차이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Triandis, Bontempo, Marcello, 1988). 이들에 의하면 개인주의에서는 성취와 경쟁 등 이익관계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

회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서적 불안정감과 같은 문제들을 집단이 함께 공유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위임하기 때문에 소외감이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반면에 집단주의에서는 설사 개인이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해도 문제해결을 집단이 공유하고, 사랑과 지지 및 정보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적게 느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가 규범부재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개인주의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권위적 수직적 위계 질서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성인 노년중심의 문화가 청소년중심의 소비문화로 변하고 있으며, 부모-자식 중심의 관계가 부부 중심의 관계로 이동하는 등의 여러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젊은 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강하며(한성열, 1990),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개인주의적 규범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한국문화는 아직까지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강한 문화이다. 한국사회는 아직도 가족관계를 사회생활로 연장시키려는 경향이 강하여 공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인정주의” 경향이 강하다(이수원, 이헌남, 1993). 특히 “우리”의식과 “情”은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틀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이 “우리의식”을 체험할 때에야 한국인은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가치를 느끼는 경향이 높다(최상진, 1993; Choi & Choi, 1990).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문화는 앞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현대적인 생활양식과 전통적인 것을 의식의 괴리나 동화의 분열현상(segmentalized assimilation)없이 성취해야

한다는 이중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의 변화상과 문제점에 대한 추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 대해 상으로 하여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개인주의-집단주의적 성향과 심리적 혼란 혹은 부적응으로서의 소외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 연구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소외감이 높을 것이다. 규범체계가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집단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집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변화상은 아직 부분적이고 보다 젊은 세대에 국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풍토는 아직도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갈등과 소외감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 현재 우리사회가 개인주의적 규범과 집단주의적 규범이라는 전통과 현대의 가치기준 사이에서 오는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다면 무규범적인 태도(무규범성은 소외의 하위유형 중 하나이다)가 강할 것이다.

둘째, 여성이 남성보다 소외감이 더 높을 것이다. 여성의 권리가 전통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가족, 직업, 사회제도 등 여러 사회의 대표적 분야들에서 우리사회는 아직도 관계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Chung & Hong, 1990). 따라서 한국문화는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친밀성과 수용성(receptibility) 등 관계주의적 규범과 역할을 강조하여 온 경향이 강하며, 오늘날의 여성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의 요구와 자주성,

독립, 개인적 목표 성취 등의 현대적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할 소지가 더 많다. 더욱이 이러한 갈등은 애정, 친밀감 등 관계주의적 가치보다 위와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를 강하게 추구하고 획득해 나가고자 하는 여성들에게서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장면을 일, 자기(self), 사회제도, 가족, 대인관계 등으로 나누어 개인주의적 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가 이러한 장면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남,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자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심리학 관련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대한 미완성 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표집인원은 364 명(남자 179명, 여자 185명)이었다.

평가도구

소외척도는 Seeman(1967)과 Kobasa와 Hoover(1979)의 척도를 기초로 Neal과 Groat(1974), Dean(1961), Seeman 과 Neal(1964), Kohn과 Schooler(1983) 등이 만든 소외문항들을 종합하여 사용하였다. 소외척도는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감, 문화적 소외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이 중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을 소외의 중심차원으로 보아 이를 소외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이 유형들을 일과 자기, 사회제도, 대인관계, 가족 등의 5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남은 7 점 척도, 72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내적 일치

도와 반-분 신뢰도 값은 소외가 .92, .89, 무기력감 19 문항이 .79, .70, 무의미성 19 문항이 .81, .77, 무규범성 19 문항이 .72, .69, 사회적 고립 9 문항이 .73, .78, 문화적 소외 6 문항이 .74, .69 이었다. 영역별로는 직업관련 15 문항이 .71, .74, 자기관련 12 문항이 .68, .72, 사회제도관련 15 문항이 .73, .70, 대인관계 관련 12 문항이 .71, .68, 가족관련 15 문항이 .78, .77 이었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는 Hue(1984)가 자기 보고형 5 점 척도의 총 63 개 문항으로 제작한 척도를 채정민(1992)이 번안하여, 내적 일치도와 요인분석을 통하여 38 문항으로 단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은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는 .78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문화적 차원으로서의 개인주의(individualism)-집단주의(collectivism) 척도가 아니라 심리적 특질로서의 개인주의적(idiocentric)-집단주의적(allocentric) 성향을 재는 척도(Triandis, 1985)로서 사용하였다.

절 차

피로효과나 연습효과 등으로부터 오는 불성실한 응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지의 반은 소외 척도를 설문지 앞쪽에 제시하고 나머지 반은 뒤쪽에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개인주의적 성향과 유형별, 영역별 소외와의 관계
개인주의적 성향과 유형별, 영역별 소외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 결과를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과 소외,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감, 문화

적 소외 등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또 영역별로도 직업, 자기, 사회제도, 대인관계, 가족 등에서 모두 개인주의 성향과 소외감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소외감이 높을 것이라는 첫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감이 영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탐색적 가설을 세웠었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등 세 가지 주요 소외유형과 개인주의적 성향과의 상관값을 알아본 결과 표 2 와 같다.

결과를 보면,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무의미성이 높았지만 무규범성, 무기력감과 는 상관 이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영역에 따라 소외감이 다를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를 차이검증한 결과에서도 자기에 대한 무규범성($f=3.6$)과 무기력감($f=2.48$)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를 뺀 일, 사회제도, 대인관계 및 가족 등에서는 모두 개인주의적일수록 소외감이 높았다. 이로 보아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전반적으로 소외감이 높지만, 그러나 자신이 행위규범을 상실하고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태도는 갖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별과 소외와의 관계

개인주의적 - 집단주의적 성향에 관계없이 여자가 남자보다 소외감이 높을 것이라는 두번째 가설을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주의적 - 집단주의적 성향에 상관없이 남,녀를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하여 차이검증한 결과, 무규범성, 문화적 소외, 일및 사회제도 등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유형별로는 소외, 무기력감, 무의미성, 사회적 고립감에서, 영역별로는 자기, 대인관계, 가족 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소외감이 높아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소외감이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었다.

성별에 따른 개인주의 - 집단주의와 소외와의 관계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주의적 성향과 소외와 상관관계가 남,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았다 표 4.

표 4에서와 같이 남,녀 모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소외감이 높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무기력감, 무의미성, 사회적 고립감, 문화적 소외 등의 소외는 높았던 반면 무규범성은 개인주의적 성향과 관계가 없었다. 또 영역별로도 일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 성향과 소외 간의 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여자들이 일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남자들은 개인주의적일수록 일을 포함한 모든 영역들에서 소외감이 높았다. 이러한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남, 녀 별로 영역에 따른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1. 개인주의적 성향과 유형별, 영역별 소외와의 상관

유 형 별	소 외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감	문화적 소 외
개인주의적 성향	.4091**	.3540**	.4436**	.2547**	.3743**	.3593**
영 역 별	직 업	자 기	사회제도	대인관계	가 족	
개인주의적 성향	.1828*	.2091**	.3341**	.3182**	.4479**	

표 2. 영역별로 본 개인주의적 성향과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과의 상관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일	.1961**	.2059**	.1550*
자 기	.1510	.2649**	.0466
사회제도	.2611**	.3156**	.1998**
대인관계	.1807**	.3691**	.1981**
가 족	.3851*	.4059**	.3237**

표 3. 성별에 따른 유형별, 상황별 일원변량분석 결과

		평 균	표준편차	F 값
소 외	여 성	261.76	52.81	24.07***
	남 성	236.16	48.75	
무기력감	여 성	61.36	16.12	27.77***
	남 성	53.37	14.01	
무의미성	여 성	58.03	16.88	17.19***
	남 성	51.16	16.20	
무규범성	여 성	76.92	15.75	4.63*
	남 성	73.72	13.88	

		평 균	표준편차	F 값
사회적 고 립	여 성	37.59	9.45	27.77***
	남 성	32.87	9.82	
문화적 소 외	여 성	26.75	6.76	.8436
	남 성	26.11	7.34	
일	여 성	45.21	11.42	2.80
	남 성	43.37	10.54	
자 기	여 성	32.97	9.47	6.81**
	남 성	30.60	8.62	
사회제도	여 성	35.00	10.32	2.25
	남 성	33.41	11.02	
대인관계	여 성	45.60	12.15	9.82***
	남 성	42.03	10.63	
가 족	여 성	46.82	13.62	54.64***
	남 성	37.38	11.91	

표 4. 개인주의적 성향과 유형별, 영역별 소외와의 상관을 남, 녀별로 보았을 때의 결과

유형 별	소 외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사회적 고립감	문화적 소 외
여 자	.3454**	.3216**	.4244**	.1092	.3064**	.3941**
남 자	.4255**	.3122**	.4351**	.3903**	.4061**	.3169**
영역 별	일	자 기	사회제도	대인관계	가 족	
여 자	.1169	.2158**	.2809*	.2755*		.4215**
남 자	.2127*	.1741*	.4737**	.3406**		.4502**

표 5. 영역별로 본 개인주의적 성향과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의 상관 (남녀 차이)

영역	여 자			남 자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무기력감	무의미성	무규범성
일	.1169	.1948*	.0352	.1091	.2017*	.2939**
자 기	.2188*	.2356**	.0460	.0308	.2745**	.0413
사회제도	.2477**	.2530**	.1425	.2486**	.3770**	.2611**
대인관계	.1553	.3735**	.1010	.1887*	.3313**	.2998**
가 족	.3849**	.3702**	.1193	.3485**	.4039**	.3707**

(* : $p < .05$, ** : $p < .01$, *** : $p < .001$)

앞의 연구결과에서 여자들의 경우 개인주의적 성향과 무규범성 간에는 관계가 없었는데, 표 5에서도 역시 개인주의적 성향의 여자들은 모든 사회적 영역들에서 무규범성과 관계가 없었다. 이로 보아 이들이 자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여러 장면들에서 규범이 혼란되고 있거나 변화하고 있다는 태도는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무기력감과 무의미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주의적이라고 해서 자신이 일과 다른 사람의 생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무기력감)는 태도는 갖고있지 않았다.

여자들이 자기에 대한 무기력감이 컸던데 비하여 남자들은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다. 이를 f검증한 결과에서도 개인주의 성향의 남자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무기력감($f=.24$)과 무규범성($f=1.70$)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에 있어서도 무규범성과 관계가 없었던 여

자들과 달리, 남자들은 개인주의적일수록 일에 있어서 명확한 규범이 없고 혼란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익이나 목표성취를 위해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무규범성)는 태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주의적인 사람과 집단주의적인 사람이 느끼는 소외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주의적일수록 소외감이 높고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은 소외와 부적 관계에 있어 개인주의적일수록 소외감이 높을 것이라는 첫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문화적 소외도 개인주의적일수록 높아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중요한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규범성은 개인주의적일수록 높았지만 남, 녀에 따라 그 태도가 달랐다. 또 부가적으로 이러한 소외감이 사회적 장면들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개인주의적일수록 일, 사회제도, 가족, 대인관계 등에 대한 소외감은 높았으나 자기와 소외 간에는 관계가 없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소외감이 높은 이유는 첫째, 본 가설의 추론에서와 같이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집단주의적인 사회로 지각되고 있고, 자신들이 사회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소외감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인 가치기준이나 규범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규범적인 태도 또한 커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 규범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이러한 전통적 규범체계가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와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집단으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안전감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사회가 아직까지 관계주의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에게 행동의 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로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집단에 의지하기 보다는 자기자신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문제해결이나 스트레스 대처를 집단과 공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Triandis, 1988; Adamopoulos, 1990; Berry, 1990; Leung & Bond, 1987).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중요한 정서적 지지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문화적 소외),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 하고, 실패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자기자신의 탓으로 귀인시키려는 성향이 강하다.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타인에게 문제해결을 의뢰하며, 실패를 자신보다는 외집단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Fromm(1956)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을 자기의 기반으로 삼아 경쟁과 성취, 성공과 명예, 독립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이러한 목표추구에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기회구조와 규범구조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사회와 더 많은 충돌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면서도 축적되는 갈등이나 문제들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결국 개인주의적인 사람은 집단주의적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며 문제해결의 자원도 집단주의적인 사람보다 부족하다. 이 경우 문화양식은 이차적인 요인으로 절하되며, 사회형태에 관계없이 개인주의적인 성향 자체가 강할수록 소외감이 높고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을 것이다(Lee, 1990).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 어떤 영역들에서 주로 소외감을 느끼는가를 살펴보면,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위의 규준을 상실한 채 갈등하고 있다거나(무규범성),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태도(무기력감)는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특성 그대로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회 장면들에 대해서는 일관된 행위의 규범이 없고, 목표성취를 위해서는 사회기준을 어길수도 있다는 태도(무규범성)와 이러한 상황을 자신 혼자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무기력감)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로 볼 때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자기는 규범과 가치기준을 지키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데, 사회규범은 혼란스럽고 변화하고 있으며, 또 이를 통제할 능력도 자신에게는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소외감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어 이들이 현재의 우리 사회를 남성중심적인 사회로 받아들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달리 개인주의적일수록 무기력감과 무의미성은 높았지만 무규범적인 태도와는 아무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자기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어떤 장면에 대해서도 규범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방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규범의 혼란과 변화에 대한 태도는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 개인주의적인 남자들은 자기를 빼고는 일과 사회제도, 가족, 대인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가치기준과 규범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무규범적 태도가 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보면, 개인주의적인 여자들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근본적으로는 아무 것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여성들의 소외감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이에 비하여 개인주의적인 남자들은 우리 사회에 집단주의적인 특

성이 강하며 이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감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자와 달리 이러한 전통규범이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

사실 여성들이 남자보다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는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다. 그 첫번째 원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이 현재의 한국사회를 사회규범은 하나도 실제로 변화한 것이 없다고 지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소외감의 원천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소외감을 더 많이 느끼는 영역은 일이나 사회제도가 아니라 자기, 대인관계 및 가족장면이었다. 개인주의적 여성들은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과는 매우 다르다(문화적 소외)고 느끼면서도 이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못하며,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들에 대해 느끼는 소외감도 크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성과 정서적 장면, 자기자신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생활영역이며, 이들이 이러한 사회적 장면들에서 남자들보다 정서적으로 깊게 관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는 여성들에게는 친밀성과 수용성 등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자기중심성이나 리더쉽과 같은 특성은 보다 남성적인 특질로 쉽게 인정해 버리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들은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친밀감과 수용성을 자신들의 고유한 여성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만일 여성들이 독립과 성취, 일과 같은 개인적 목표를 추구한다 해도 아직까지 일이나 사회제도 보다는 대인관계, 가족과 같은 관계장면이 여성들의 고유한 스트레스와 갈등의 일차적 자원인 것 같다. 또 이로 추론해 보건대 성취지향적인 여성들이 만일 일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

고자 한다면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는 성취욕구라는 개인주의적 목표와 관계성과 친밀감이라는 여성적 특질 사이에서 오는 인지부조화를 경험할 소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에서 무규범성을 느끼고 있었던 남자와 달리 여자들은 일에 대해서는 무규범성도, 무기력감도 경험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여자는 남자와 달리 우리 사회의 직업이나 일의 규범체계가 변화하거나 혼란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하리라고 느끼지도 않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학생들이고, 따라서 이들이 일이라는 사회적 장면과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응답 결과는 자신감의 표현일 뿐 실제적인 타당성을 갖고있지는 못함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소외감이 가장 높은 영역이 가족이라는 것이다. 상관분석결과 일(4%), 자기(4.5%), 사회제도(11%), 대인관계(10%) 등에 비해 가족에 대한 설명변량(20%)이 가장 컸으며, 개인주의적인 남녀 모두 가족에 대한 갈등을 제일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가족은 사회구조의 가장 안정적인 핵심구조이면서도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특히 다른 사회에 비하여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족형 집단의식(김성태, 1987;최상진, 1993;최재석, 1966;Cha, 1990)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는 다른 어떤 영역들보다 가족구조의 흔들림이 민감한 소외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와, 가족이 가장

풍부한 정서적 지지의 자원이라는 사실로 추론해 보건대,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에 대해 큰 가치를 두지 않고 있고 가치관이나 생각도 다르다(문화적 소외)라고 응답하면서도 가족에서 느끼는 소외감이 컸다는 모순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이들도 집단주의적인 사람만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생들만을 표집해서는 현재 우리사회에 대해 젊은이들이 갖는 태도를 포착해내지 못한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과 직업에 따른 층화표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로부터 얻은 감정적인 결론을 보다 실제적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상과 관련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떤 영역들에서 집단주의적 양식이 우세하고, 어떠한 영역들에서 개인주의적 양식이 확산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연구자들이 소외를 정의하고 이 개념으로 현대사회를 비판하기는 하였지만 연구주제에 따라, 연구자의 임의적 주관에 따라 여러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되어 온 경향이 컸기 때문에 소외개념의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로 우리 문화의 흐름이 현재 문화적 혼재기에 처해있다면 개인주의적 성향과 집단주의적 성향을 구분하는 자체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성원들은 이 두 가지 특질을 모두 각기 다른 정도로 소유할 수 있으며, 어떤 장면에서는 개인주의적 특질이, 다른 사회적 장면에서는 집단주의적 특질이 각기 다르게 발휘된다. 그러므로 보다 정교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장면과 두가지 성향 간의

역동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나아가 개인주의, 집단주의 특질을 일종의 개인적 정체감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정체감이 명확하게 형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기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문화를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지를 잠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한계 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집단주의란 어떤 점에서 이미 인간과 문화 사이의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서적 지지와 협동이야말로 인간적 생존의 기본틀이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적 양식은 이때 집단주의적 토대 위에서 성립되며 어떤 문화양식도 이 중 어느 한쪽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이런 정의 하에서의 개인주의, 집단주의는 Hue나 Triandis의 주장과 같이 서로 다른 문화양식 혹은 단일선상의 양극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상보적으로 보충하고 발달시켜야 할 과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개인과 문화의 특성을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 성태 (198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인문논집, 제 32 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민 경환 (1993). 소외의 심리학적 개념화. 한국심리학회지, 7, 71-88.
 이 수원, 이 헌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정 문길 (1978).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정 문길 (1984). 소외론. 문학과 지성사.
 채 정민 (1992). 내,외집단에서의 자기주장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 재석 (196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개문사.
 최 상진 (1992).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식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최 상진 (1993).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 정과 한에 대한 현상학적 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한 성열 (1993). 한국가족의 형태와 발달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Adampopulos, J. (1990). The emergenc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s cultural pattern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lpert, H. (1937). *Durkheim, emile : A perspective and appreciation*. University of Oregon.
 Berry, J. W. (1990). Ecolog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a, Jae-ho. (1990). Aspects of collectivism in Korea.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oi, Sang-Chin & Choi, Soo-Hyang. (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 collectivism.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ung, Jean-Kyung & Hong, Soon-og. (1990).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sex-role stereotypes : The common and the specific.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Dean, D. (1961). Alienation : Its meali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58.
- Fromm, E. (1956). *The Sane society*.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Ltd.
- Groat, H. T. & Neal, A.(1967).Social psychological correlates of urban fert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2, 945-959.
- Groat, H. T. (1974). Social class correlates of stability of change in levels of alenation. *Sociological Quarterly*, 15, 549-558
- Hui, C. H.(1988) Measurement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2, 17-36
- Kobasa, S. C. & Hoover, M. (1979). An alienation tes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 73-76.
- Kohn & Schooler, (1983). *Work and personality :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ex
- Lee, Kwang-Kyu. (1990). Family support and elderly. *Individualism and collectivium :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ung, K. & Bond, M. H. (1987). The impact of cultural collectivism on reward allo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4, 793-804.
- McClosky, H. & Schaar, J. H. (1965). Psychological dimension of a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14-40.
- Maddi, S. R., Kobasa, S. C. & Hoover, M. (1979), An Alienation Test. *Humanistic Psychology*, 19, 4.
- Maddi, S. R., Kobasa, S. C. & Hoover, M. (1979), *Alienation and Exploratory Behavior*. University of Chicago.
- Seeman, M.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783-791,
- Seeman, M.(1967). Meaning and measurement of alienation. *The Psychological of Warsaw*.
- Segal, J. M. (1990). *Agency and alienation : A theory of human presence*, Savage. Maryland : Rowman & Littlefield.
- Triandis, H. C. (1985). Allocentri vs idiocentric tendencies : Converg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iandis, H. C. (1967). Interpersonal rel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 26-55.
- Triandis, H. C. (1972). *The analysis of subjective culture, interpersonal behavior*. Norterey: Brooks/Cole New York, Wiley.
- Triandis, H. C. (1978). Sane universals of social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itia, 4, 1-16.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3, 506-520,
- Triandis, H.C., Bontermpo, T.& Marcelo,J.(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2, 323-338.
- Triandis, H.C.(1990):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in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lienation and Individualistic/Collectivistic Tendency

Seong-Yeul Han and Heung-Pyo Lee

Dep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lienation and individualistic/collectivistic tendency in Korean 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dividualistic person tends to feel stronger degree of alienation than collectivistic one in five types of alienation(powerlessness, meaninglessness, normlessness, social isolation, cultural alienation), and in five social contexts(work, self, social institution, interrelationship, family). And woman is more sensitive to alienation than man in such social contexts as self, interrelationship and family. The fact that individualistic person tends to feel more alienated than collectivistic person suggests that Korean society is still perceived as a collectivistic culture by individualistic person. Individualistic woman feels more alienated than individualistic man. But woman's alienation is not related with normlessness. This fact suggests that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s perceived not being much changed and still man-centered society by individualistic woman. Contrary to this, individualistic man feel all types of alienation, including normlessness. This fact suggests that individualistic man perceives contemporary Korean social norm is being changed and chaotic. In addition to it, the fact that woman is experiencing strong alienation in contexts of family, interrelationship may suggest that woman tends to need more emotional support from others than man, and that relation-oriented contexts are primary sources of conflict and stress of woman.